

# 인문대 소식



발행처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 주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산 30번지  
발행일 2010년 9월 30일 | 전화 051-510-1501 | 발행인 배만호 | 편집인 김중수  
디자인/제작 비온후(051-645-4115 / beonwho@naver.com)

## 학사 일정

10.4(월)~8(금)	수강신청 취소(W) 신청기간
10.19(화)~25(월)	중간고사
11.10(수)~12(금)	겨울 계절수업 수강신청
12.13(월)~17(금)	기말고사
12.18(토)	동계휴가 시작
12.20(월)~' 11.14(금)	겨울 계절수업(4주)
12.20(월)~' 11.20(목)	2011학년도 1학기 교수계획표 입력
2010.12.31(금)	종무식

## 2009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 2009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이 8월 20일 오전 10시 30분, 경암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날 학위수여식을 통해 학사 933명, 석사 834명, 박사 124명이 배출되었다. 인문대학에서는 학사 116명, 석사 27명, 박사 10명 등 총 153명이 학위를 받았다. 이날 행사는 학사보고, 총장 학위수여식, 총동문회장 축사, 학위기와 표창장 수여, 축하연주, 교가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각 단과대학 수석졸업자에게 최우수상이 수여되었는데, 인문대학에서는 천동혁(불어불문학과)군이 수석을, 장은혜(고고학과)양이 차석을 차지했다. 학위수여식에서 김인세 총장은 졸업생들에게 “도전하는 자세와 창조력, 전문성, 도덕성, 휴머니즘,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마인드” 등을 강조하면서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하는 1등 시민이자 훌륭한 지도자의 길을 걸어 달라”고 당부했다.

## 초석/머릿돌 제자리 찾기

| 인문관 현관의 실내에 당위성 없이 놓여 있던 초석(머릿돌)을 8월 5일 인문관 현관 입구 잔디밭으로 이전하였다. 동 초석은 2004년 6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있었던 인문관 리모델링 공사 후 인문관의 연혁을 새겨 놓은 것으로 마침내 제자리를 찾게 되었고, 주변의 환경조성을 위하여 현관 입구와 포치(그늘 막)의 도색과 안내 표지판을 정비하였다.



### 머릿돌: <인문관의 연혁>

인문관은 본래 부산대학교의 본관 건물로서 초대총장 윤인구(尹仁駒)의 구상과 후원회장 박선기(朴善琪)의 재정적 지원과 우리나라 현대건축의 거장 김종업(金重業)의 설계로 건립되었다. 1957년 9월에 착공하여 1959년 10월에 준공을 본 이 건물은 1950년대 불란서 현대건축의 대가 르 코르뷔제(Le Corbusier)에게 사사를 받고 돌아온 김종업이 설계한 최초의 작품으로서 우리나라 초기 모더니즘 건축을 대표한다. 1995년 11월 대학본부가 새로 건립된 현 본관 건물로 이전함에 따라 인문대학의 전용 건물이 되면서 인문관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1997년 이후 노후에 따른 안전성의 우려로 재건축이 검토되어 오다가 이 건물의 역사성과 조형적 특성을 감안하여 2002년 11월 대수선을 하기로 방향을 바꾸었다. 2004년 6월부터 대수선 공사를 시작하여 2005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하였다.

## Contents

## 인문대 박사학위 10명 취득

### 박사 학위자 명단

- | **김경연**(국어국문학과)  
「1920-30년대 여성잡지와 근대 여성문학의 형성」\_지도교수: 김중하
- | **제 영**(국어국문학과)  
「한·중 피동문 대조 연구」\_지도교수: 최규수
- | **여정화**(중어중문학과)  
「漢·英習語中動物詞彙象征意義的比較研究」\_지도교수: 강식진
- | **황은덕**(영어영문학과)  
「한국계 미국소설의 디아스포라 주제」\_지도교수: 정진농
- | **최진실**(영어영문학과)  
「접속 부가어의 영한 번역 연구」\_지도교수: 박기성
- | **임명호**(한문학과)  
「朝鮮後期 漢文學의 雅俗論 研究」\_지도교수: 김성진
- | **유영옥**(한문학과)  
「校正廳本 四書諺解의 經學的 研究」\_지도교수: 김승룡
- | **이성혜**(한문학과)  
「근대전환기 서화의 생산과 유통에 관한 연구」\_지도교수: 강명관
- | **이기복**(사학과)  
「일제하 '水産博覽會'와 조선 수산업의 동향」\_지도교수: 김동철
- | **김도현**(고고학과)  
「嶺南 地域의 原始·古代 農耕 研究」\_지도교수: 신경철

## 인문대 학생 농촌봉사활동



해마다 실시되는 인문대생의 농촌봉사활동이 올해도 변함없이 경남 함양군 백전면, 병곡면, 서상면과 후동마을에서 있었다. 인문대 7개 학과와 부산대 문예패 연합이 참여한 이번 농활은 6월 24일 발대식을 갖고 현지로 출발하여, 7일간의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7월 2일 해단식을 갖고 부산으로 돌아왔다.

### 농활대 일정

- 6월 24일: 출발 및 발대식
- 6월 27일: 장터 선전전
- 6월 30일 ~ 7월 1일: 마을잔치
- 7월 2일: 해단식 및 돌아오는 날

## 2010년 1학기 환경개선 사업

인문대학에서는 지난 하계방학 기간에 걸쳐 다양한 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하였다. 먼저 강의실 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소리 울림 현상으로 수업에 불편을 겪었던 인문대학 217호, 317호 강의실에 울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8월 25일~28일까지 4일간 강의실 벽면 양면에 흡음판 부착 공사를 하였다. 이번 공사로 울림 현상이 없어졌을 뿐 아니라 강의실의 미관도 좋아졌다. 아울러 칠판에 백보드용 지우개 사용으로 백목의 사용이 어려운 9개실에 백보드와 칠판에 동일한 지우개를 사용할 수 있는 칠판으로 교체 설치하여 강의의 편의를 제 공했다. 또한 인문대학의 각 학과 사무실에서 사용되고 있는 컴퓨터가 노후하여 학과의 행정업무 처리에 불편을 주고 있어 12개 전학과의 컴퓨터를 전면 교체하였으며, 2005년산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교수 연구실의 컴퓨터 6대를 9월 17일까지 교체하여 교수 연구 활동을 원활하게끔 했다. 이밖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개선되었다.

1. 인문관 머리들 외곽 이동
2. 인문관 현관 안내판 정비 및 입구 벽 도색
3. 인문관 입구 인문관 안내도 재정비
4. 인문대 학생회 사무실 도색 및 마루바닥 청소 (8.17~8.20)



5. 학생회 사무실 롯데 캐논 복사기 설치
6. 학생회 사무실 PC 검색대 (2대) 및 헬프데스크 랜선 설치
7. 교내 게시판 부착면 교체 (인문대 관리 3개: 인문관 및 통로, 학생회실 옆, 학생회실 화장실 옆)
8. 교수 연구동 서향유리 상단 선풍기 부착 (4,5,6층 39개)
9. 212호 세미나실 빔 프로젝터 설치

# 차를 마신다는 것

## 곽차섭

나는 매일 아침 차를 마신다. 우선 뜨거운 물을 차관(茶罐)과 찻잔에 부어서 찬 그릇을 따끈하게 데운다. 잠시 후 물을 식힘 그릇에 붓고 차관에 찻잎을 넣는다. 김이 잦아드나 싶을 때 식힘 그릇에 따라 놓은 물을 다시 차관에 붓는다. 첫 번째 우려내는 차는 취향 따라 다르겠지만, 1분 정도 내에 따라내야 한다. 더 두면 너무 많이 우려나서 맛이 쓰고 텁텁해진다. 두 번째부터는 조금 더 시간을 준다. 잘 우려낸 차는 아주 은은하면서 입안 전체를 감싸는 풍미를 선사하는데, 오래 마실수록 더 미묘한 맛을 느낄 수 있다. 차가 좋으나 좋지 않으나 바로 이 은은하면서 미묘하게 혀바닥과 입천장을 어루만져주는, 필설(筆舌)로 다할 수 없는 맛이라 할까 멋이라 할까, 하여튼 그런 것에 있다. 맛이 달든 고소하든 한 가지가 너무 돌출하면 상품의 차라 하기 어렵다.

아침에 와서 혼자 차를 마시는 시간은 참 소중하다. 하루 동안에도 쉽게 얻기 힘든, 짧지만 깊은 무념(無念)의 모멘트를 주기 때문이다. 차를 마시는데 걸리는 시간은 사실 얼마 되지 않는다. 차관을 덥히는 때부터 세 번 정도 우려내서 차 맛을 보는 때까지 다 합쳐도 대략 20여 분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 길지 않은 시간이야말로 나에게 누구로부터도 방해받지 않는 귀중한 순간이다. 때때로 이 순간을 방해하는 것은 타인이 아닌 오히려 바로 나 자신이다. 보통 그러하듯이, 연구실에 들어서면 먼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컴퓨터를 켜는 것일 텐데, 이 지극히 일상적이면서도 문명적인 행위가 무상지경(無想地境)에 발을 들여놓고자 하는 나를 방해하는 최대의 적이다. 차관이 덥혀지고 있는 동안, 서둘러 부팅을 완료한 컴퓨터가 초기 화면을 띄우면서 나를 유혹하기 때문이다. 우선 이메일이라도 체크하라고 성화를 부린다. 하루에도 여러 차례 들여다보는 이메일에 무슨 연정(戀情)의 사연도 있을 리 없건만, 나는 이 건조하면서도 뿌리치기 힘든 유혹에 빠져들고 마는 일이 적지 않다. 이 유혹에 빠지면 차를 맛보며 느끼려 했던 무념무상의 순간도 끝이다. 차는 마치 질투심 많은 연인처럼 오직 자신만을 보라고 한다.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는 사람에게는 그 미묘하고 은은한 풍미도, 그것이 인도하는 평온하고 정갈한 무사(無邪)의 순간도 보여주지 않는다. 그리고 보면 차와 컴퓨터는 먼저 서로를 보라고 유혹하는, 연적(戀敵)인 셈이다.

나의 다실(茶室)이기도 한 내 연구실은 남향 4층이다. 맨 끝 방이라 문앞을 지나가는 사람도 없어 내내 조용한 편이다. 게다가 모(某) 선생님이 조상 음덕이라고 만날 때마다 농담을 던지는, 교수들 안에서 가장 넓은 몇 개의 방 중 하나다. 남쪽 베란다로 나가면 푸르

른 솔밭이 바로 가까이에 있고, 앞뒤 문을 열어놓으면 싱그러운 솔향이 부드럽러운 바람 속에 묻혀 들어온다. 여름 내내 새순이 탐스럽게 싹싹 자라 올라오던 솔가지마다 이제는 아직은 설익은 젊은 솔방울들이 주렁주렁 맺혀있다. 하지만 이 솔밭에 언제나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던 다람쥐며 청설모가 보이지 않아 참 아쉽다. 그리고 보니, 건물을 나설 때마다 길을 갈 때마다 짹째 몸을 숨기고 그 맑고 또랑또랑한 눈망울로 나를 가만히 쳐다보던 그 녀석들을 본 지도 이미 오래된 것 같다. 주변 세상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늘 그대로인 것처럼 보이는 것도 내 착각인 게다.

내가 매일 마시는 차는 중국차가 아닌, 흔히 녹차라 부르는 우리차다. 이런저런 중국차도 가끔 마시기는 하지만, 역시 우리차가 내 취향이다. 중국차는 일반적으로 뜨거운 물을 바로 부어 마시고 향도 강한 편이다. 그래서 부드럽고 미묘한 맛을 더 선호하는 내 입맛에는 잘 맞지 않다. 녹차 중에서도 주로 우전(雨前)이나 작설(雀舌)을 마신다. 우전이란 봄비가 내려서 온갖 곡식이 윤택해진다고 하는 곡우(穀雨) 전에 이제 막 돌아나는 잎을 따서 제다(製茶)한 것으로 맛이 아주 순한 최상품이다. 작설은 잎의 모양새가 흡사 참새 혀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 입하쯤에 따서 만드는 세작의 일종이다. 그런데 사실 우전은 우전이 아니다. 양력으로 4월 20일인 곡우 전에 새순을 따는 것은 옛 중국 원산지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기후가 다른 하동이나 보성에서는 가능치 않다. 그래서 보통 5월초에 열리는 하동 차축제에 가봐도 우전을 보기가 쉽지 않다. 아직 제다가 이른 탓이다. 나는 해마다 5월초나 중순에 하동으로 가서 새 차도 맛보고 사기도 하면서 차 순례를 한다. 그때쯤이면 쌍계사 벚꽃길이 무릉도원과 다름없으니 아내와 궂구경 겸해서 하루 차행의 즐거움을 만끽하곤 했다. 올해는 무엇이 바쁜지 그것도 하지 못했으니 또 한 번 아쉽다.

차의 미덕은 많다. 그 중 하나는 나눔의 덕이다. 차는 아무리 잘 보관해도 1년이면 상품의 풍미가 사라지고 2년이면 더 이상 맛을 음미하기 힘들게 된다. 공기와 만나 산패하기 때문이다. 해서 비록 상품의 차라 하더라도 오래 갖고 있을 수가 없다. 1년 안에 쓸 수 없을 것 같으면 친구와 지인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편이 좋다. 차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맛보고, 느끼고, 음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짧지만 매일 무념무상의 순간을 제공해주고, 필설이 모자랄 정도로 미묘하면서도 다양한 풍미를 선사하고, 게다가 나눔도 때가 있다는 평범하면서도 현현(玄玄)한 진리를 깨우쳐주는 것이 차다. 차를 마신다는 것은 이 모든 미덕을 나누어 받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차를 사랑한다.



필자 :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교수  
서양사 전공

## 학과/연구소 소식

### 국어국문학과

국어국문학과와 이현홍 교수가 대만 정치대학교 파견을 마치고 복귀했다. 이 교수는 2009년 9월 1일부터 2010년 7월 31일까지, 정치대학에서 재중 한인 구연 설화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수집해 정리하고 주해했다. 한편, 동 학과의 임종찬 교수가 2010년 8월 31일부로 정년 퇴임했다. 임 교수는 1981년 전임강사로 부임한 후 약 30년 동안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에 몰두했으며, 부산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문화생활부장, 개교 5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위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장, 부산대학교 학생처장을 역임하는 등, 모교 발전을 위해서도 많은 애를 썼다.

### 중어중문학과

중어중문학과에서는 8월 2일 교수연구동 104호 세미나실에서 강사진 학과장의 주도로 2010년 후기 일반대학원 신입생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마련했다. 대학원 수업과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하고 신입생들에게 학과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했다. 또한, 중어중문학과 대학원과 중국연구소가 주최하고 한국한자연구소가 주관한 “漢語文字與文化國際學術研討會高槩高級論壇” 국제학술세미나가 8월 17일 인덕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국내외 학자 50여명이 참석하여 “21세기 한자문화 연구방법의 새로운 모델 구축—동서양의 방법론 비교”에 주안점을 두고, 하부주제로 한자 연구방법론, 한자문화연구방법론, 한자비교연구방법론 등으로 나누어 이루어졌으며, 한어의 형태론에 반영된 중국문화 등 다수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 영어영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소속 학부 연극동아리인 드라마학회가 지난 9월 11일과 13일 양일간 각각 부곡동 자갈치소극장과 부산대 10.16기념관에서 셰익스피어의 명작 『로미오와 줄리엣』을 변형 각색한 “로미오, 서른이 되다”로 제29회 여름 정기공연을 개최하였다. 영어영문학과 드라마학회는 30여년의 전통을 가진 인문대학 유일의 학부 연극동아리로서 기획, 연출, 무대장치 등 공연 제반사항을 자체적으로 준비한다.



영문과 드라마

그리고 영어영문학과 대학원 하계세미나가 전공별로 있었다. 문학전공은 7월 7일부터 8일까지 해운대 아르피나 유스호스텔에서, 어학전공은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전라남도 보성군에서 각각 개최하여

전공별 논문강독 및 예비학위청구논문발표회를 가졌다. 영어영문학과 대학원은 매년 전공별로 하계세미나를 가지며, 동계세미나는 전공통합으로 개최된다. 8월 16일에는 제2회 영어영문학과 동문장학금 수여식이 있었다. 동 학과의 동문장학금은 2010학년도 1학기부터 매학기 학과 동문회 발전기금 출연으로 학부 각 학년의 성적우수자를 한 명씩 선정,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 불어불문학과



불어불문학과 학생 14명은 6월 24일에서 7월 2일까지 함양군 함양읍 후동마을로 2010학년도 농촌봉사활동을 다녀왔다. 또한 학부생 20명이 학과단위 해외파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7월 2일부터 8월 5일까지 박형섭 교수의 인솔 하에 프랑스 브장송에 있는 프랑쉬-공떼 대학교에 다녀왔다. 학생들은 파견대학에서 4주간 강도 높은 프랑스어 수업을 받았으며, 주말을 이용하여 브장송 주변의 도시들과 주변 국가를 돌아보고 출국 마지막 일주일엔 파리에 체류하며 프랑스 문화와 예술에 대한 체험을 하였다.

### 독어독문학과

독어독문학과는 학생들에게 어학연수의 기회 제공 및 교환학생 인정을 통해 독어·독문학이라는 학문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고취시키기 위해 2009년도 1학기부터 대외교류본부에서 주관하는 학생해외파견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 5월, 2010학년도 2학기 정규학기 학생해외파견 사업에 선정되어 9월 말에 출국 예정인 9명의 학생들이 대상으로 8월 30일부터 9월 17일까지 매일 14:00~16:30분까지 특강수업을 진행하였으며, 2011학년도 1학기 정규학기 학생해외파견 사업에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2학기에 교환학생 자격으로 독일 하노버 대학에서 두 명의 학생들(Maria Grusdt, Stephani Bernstein)이 왔으며 9월 16일(수) 인문관 211호에서 환영 모임을 가졌다.

### 노어노문학과

노어노문학과에서는 대외교류본부의 학과단위 해외파견 프로그램을 통해 2010년 6월 23일부터 7월 22일까지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 대학교에 7명의 학생들을 2010학년도 여름 계절학기에 파견하였고, 2010학년도 2학기에는 9명의 학생들을 카자흐스탄 키렘 대학에 파견하였다. 이 학생들은 8월 17일부터 12월 29일까지 그곳에서 학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 한문학과

한문학과에서는 하계 및 동계 방학마다 중국·일본·대만 등지의 대

학과 국가별 유적지를 방문하는 해외 언어문화연수를 개최해왔다. 이번 여름방학에는 7월 20일~24일에 걸쳐 동양한문학회를 겸하여 중국 청도, 치박, 곡부, 태산 등의 유적지를 방문하고, 제102차 동양한문학회를 공자의 고향인 곡부에서 개최하였다. 또한 매년 방학기간에 맞춰 개최하는 대학원 세미나를 전남 구례 지리산 아래에서 가졌으며, 2009학년도 후기 졸업식에서는 3명의 문학박사(임명호, 유영옥, 이성혜)를 배출했다.

### 사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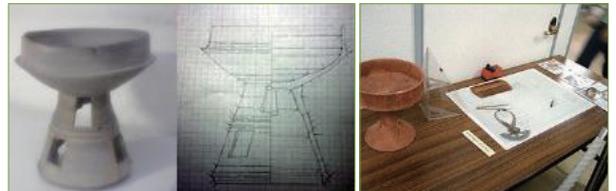
사학과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활발한 학술활동을 수행했다. 8월 23일에는 효원사학회 2010년 여름 학술발표회를, 8월 27일에는 본 학과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사)부경역사연구소의 공동주최로 “한국전쟁과 지역의 변화”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8월 24일에는 대학원 학위논문 중간발표회도 열렸다. 또한 8월 20일에는 “사학과 60주년 기념 역사가족 한마당”을 통해 마련된 사학과 발전기금 장학생 4명을 최초 선발하여 장학금을 수여하였다.

### 철학과



철학과 학부생들은 6월 24일부터 7월 2일까지 함양군 서상면 옥산마을로 농촌봉사활동을 다녀왔다. 한편, 동 학과의 김준수 교수가 내년 8월까지 1년간 일정으로 미국 시카고대학에서 연구하게 되며, 객원교수로 지난 1년간 방한했던 마조리 밀러 교수는 8월 31일자로 임기를 마치고 떠났다.

### 고고학과



고고학과에서는 7월부터 8월까지 현장실습을 진행했다. 7월에는 울산문화재연구원, 우리문화재연구원, 동서문물연구원, 경주문화재연구원에서 총 29명의 학생들이 진해, 부산, 울산, 창녕 등 영남 일대의 발굴 현장에서 발굴을 하거나 연구원에서 실측, 토기복원 등의 실내작업을 하였다. 한편, 2009년 9월 1일부터 11개월간 한일 고대문화 비교연구를 목적으로 일본 리츠메이칸대학(立命館大學)으로 파견되었던 김두철 교수가 7월 30일에 귀국하였다.

###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한국민족문화연구소 HK연구단은 지난 8월 27일(금) 인덕관 대회의실에서 부경역사연구소, 인문대 사학과, 사범대 역사교육과와 공동으로 “한국전쟁과 지역의 변화”라는 대주제 하에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9월 3일(금)에는 인문관 시습관에서 한국중세사학회와 공동으로 “인물과 지역을 통해 본 고려사회”라는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였으며, 9월 10(금)에는 다시 인덕관 대회의실에서 제33회 학술심포지엄으로 “한국사상, 근대를 사유하다”라는 주제 하에 ‘한국 실학사상과 근대적 조영’, ‘동양사상과 근대성의 전개’, ‘한국 근대 의리사상의 현실 인식’, ‘한국 근대 불교와 교육개혁’ 등의 논문발표가 있었다.

### 점필재연구소

점필재연구소는 9월 11일부터 17일까지 경남 밀양 전역(밀양시립도서관, 밀양시립박물관, 밀양시청, 밀양역 등)에서 ‘2010 밀양 인문주간’을 개최하였다. 연구소는 ‘기억의 축제-역사 속의 개인, 기억 속의 역사’란 주제로 이 기간 동안 ‘원로에게 듣는 역사 이야기’, ‘역사토론: 개인의 기록으로 읽는 역사의 격랑’, ‘길 위의 인문학-길 위에서 만난 우리 역사’, ‘시화전시’, ‘청소년 연극 아랑’ 등 모두 9개의 세부행사를 열었다. ‘인문주간’은 한국연구재단이 2006년부터 매년 ‘열림과 소통’이라는 큰 주제 아래 일주일간 전국적으로 인문학 관련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인문학의 대중화를 꾀하는 프로그램이다.

# 동문 소식

## 동문회 조직 (2010.1.1 ~ 2011.12.31)

### 동문회장

홍성복 (철학 76)

### 동문회 고문

박태권(국문 48), 박근우(영문 52), 손선익(사학 53),  
조현규(영문 54), 진문희(국문 56), 박홍길(국문 58),  
김승동(철학 59), 강순근(철학 67)

### 수석 부회장

권태하(국문 77), 황영순(영문 80)

### 당연직 부회장

한익훈(사학 64), 이현홍(국문 70), 박만준(철학 70),  
배만호 (영문 74), 주환수(독문 79), 이무진(일문 82),  
장형기(중문 83), 고창현(불문 84), 양은경(고고 89),  
배부기(한문 90), 박동근(언어 94), 조영은(노문 95)

### 선임 부회장

윤병태(국문 66), 안상길(국문 76), 김기섭(사학 76),  
유수근(영문 78), 손성용(독문 78), 조한제(영문 79),  
전광호(불문 79), 배정우(철학 79), 박홍환(불문 80),  
주환명(영문 81), 남경우(독문 81), 남덕현(중문 82),  
강영훈(일문 82), 조인실(일문 82), 김쌍우(국문 83),  
강상욱(사학 83), 이성권(철학 88)

### 동문회 감사

김필순(국문 66), 손영삼(철학 78)

### 자문위원

박동춘(사학 46), 안동환(영문 68), 공옥식(국문 74)

### 당연직 이사

박미숙(독문 79), 이진광(독문 79), 한태문(국문 81),  
장광진(영문 81), 이종봉(사학 81), 이찬엽(중문 83),  
노의석(불문 85), 김민정(일문 90), 강대호(고고 90),  
김창준(철학 91), 임영선(노어 95)

### 사무국장

김아카다 (국문 76)

### 사무차장

박형준(사학 84), 노의석(불문 85)

## 2010년 인문대 동문회 워크숍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1박2일 동안 전남 화순 도곡 스파랜드에서 인문대 동문회 워크숍이 열렸다. 인간과 삶 전반에 대한 관심을 뒤로 하고 오로지 경쟁에만 치우쳐 있는 우리 사회에 인문학을 전공한 우리 동문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또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찾자는 취지로 열린 워크숍에는 10여명의 고문과 임원진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김성진(국문 77, 부산대 한문학과 교수) 동문이 “선인들의 산수유람(山水遊覽)과 양생(養生)”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고, 이어 참석한 동문들의 질의와 토론이 있었다.

## 자랑스러운 동문



2010년 8월 8일 정부 개각 때 특임차관으로 임명된 김해진 차관을 소개한다. 김 차관은 경남 밀양 출생으로 해운대중과 브니엘고를 졸업하고,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독어독문학과 79학번으로 입학하여 1985년 2월에 졸업하였다. 1986년 경향신문에 입사하여 사회부장과 정치부장을 역임했고, 1990년대 초 정치부 기자 시절 민중당 사무총장을 지낸 이재우 현 특임차관과 인연을 맺은 뒤 지금까지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김해진 동문은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이명박 대통령후보 언론특보 출신으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위원 겸 전문위원을 역임하였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감사로 활동하다가 지난 7.28 은평 재보궐 선거 때 감사직을 그만두고 이재우 장관의 선거참모로 활약했으며, '나홀로 선거'를 총괄 기획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레일 감사 시절에는 철도노조 파업 당시 허준영 사장과 함께 '법과 원칙'에 따른 대처로 파업을 원만히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동문은 앞으로 모교 인문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 정년퇴임 교수

국어국문학과 임종찬 교수



임종찬 교수는 부산대학교 문리과대학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1977년 국문학 석사를 거쳐 1981년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1년 3월부터 2010년 2월까지 29년간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재직하였으며, 대만 국립정치대학(2002~2003) 및 중국 청도대학(2007)에서 객원교수를 지냈다. 한국시조협회 회장(2006~2009)을 역임하였고, 부산대 개교 5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을 지냈으며, 부산대학교 학생처장을 역임하였다. 전공은 현대시조이며, 저서로는 『현대시조 탐색』(2004), 『현대시조의 정서와 방향』(2009), 『시조문학 탐구』(2009), 『시조에 담긴 주제와 시각』(2010) 등이 있고, 시조집으로는 『호룡불』(1984), 『대숲에 사는 바람』(1994), 『고향에 내리는 눈』(1999), 『논길에 보이는 풍경』(2001), 『나 이제 고향 가서』(2008) 등이 있다.

## 신임교수 부임

고고학과 조교수 배진성



배진성 교수는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고고학과를 졸업하고, 2000년 동대학원 사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007년 동대학원 고고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부산대학교 고고학과에서 청동기시대 고고학과 한국 고대농경문화를 강의하였으며, 2002년 3월부터 2010년 8월까지 국립 김해박물관 및 국립 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로 재직하였다. 논문으로는 『韓半島 柱狀片刃石斧의 研究』, 『無文土器文化的 成立과 階層社會』 등이 있다.

## 교수 연구년 및 국외파견

연구년 A

강명관(한문학과) | 부산, 1년(2010.3.1~2011.2.28)

박정심(철학과) | 부산, 1년(2010.3.1~2011.2.28)

오경환(일어일문학과) | 일본 國際日本文化研究 센터, 11개월(2010.4.1~2011.2.28)

윤일환(영어영문학과) | 미국 하버드 연칭 연구소, 11개월(2010.8.1~2011.6.30)

연구년 B

이종봉(사학과) | 부산, 1년(2010.3.1~2011.2.28)

전광호(불어불문학과) | 한국, 프랑스, 1년(2010.9.1~2011.8.31)

국외파견

김준수(철학과) | 미국 시카고대학(시카고 소재), 1년(2010.8.15~2011.8.14)

안동환(영어영문학과) |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채플힐 소재), 1년(2010.3.1~2011.2.28)

## 교수동정 단신

| **이헌홍** 교수(국어국문학과)는 2009년 9월 1일(화)~2010년 7월 31일(토)까지 대만 國立政治大學에 파견되어 연구를 수행한 후 귀국하였다.

| **최규수** 교수(국어국문학과)는 9월 16일(목)~19일(일) 중국 산둥대학 외국어학원과 언어연수생반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동북재정대학, 청도이공대학을 방문하여 언어연수생 모집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 **한태문** 교수(국어국문학과)와 **최덕경** 교수(사학과)가 인문대학 프리미어 교수로 선정되었다.

| **김용규** 교수(영어영문학과)가 인문학연구소 소장으로 임명되어 전임 주광순 교수(철학과)의 뒤를 이어 앞으로 3년간 (2010. 7.1~2013.6.30) 연구소를 이끌게 된다.

| **박기성** 교수와 **전지현** 교수(영어영문학과)는 7월 5일(월)~9일(금)까지 몽골에서 개최된 국제학술대회(International Conference on Korean Linguistics)에 참가하여 논문 발표를 하였다.

| **이재성** 교수(영어영문학과)는 2009년 8월 1일(토)~2010년 8월 23일(월)까지 미국 뉴욕주립대학(알바니 소재)에 파견되어 연구를 수행한 후 귀국하였다.

| **정병언** 교수(영어영문학과)는 7월 12일(월)~23일(금)까지 아일랜드 더블린대학 연구학과를 방문하여 연구에 관한 협의를 한 후, 아일랜드 극작가에 대한 현장 자료조사를 벌였다.

| **박형섭** 교수(불어불문학과)는 7월 12일(월)~16일(금)까지 부산대학교 대외교류본부 지원사업인 '학과단위 해외파견 사업'에 선정된 학생들을 프랑스 브장송 소재 프랑쉬-퐁페 대학에 인솔하였다.

| **윤애선** 교수(불어불문학과)는 8월 20일(금)~22일(일)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제23회 전산언어학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하여 논문을 발표하였다.

| **채숙희** 교수(불어불문학과)는 2010년 6월 18일(금)~8월 17일(화)까지 프랑스 프랑쉬-퐁페대학에 단기파견으로 나가 연구를 수행한 후 귀국하였다.

| **허영재** 교수(독어독문학과)는 2009년 8월 20일(목)~2010년 8월 19일(목)까지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버클리 소재)에 파견되어 연구를 수행한 후 귀국하였다.

| **양민중** 교수(노어노문학과)는 9월 1일(수)~2일(목) 양일간 2009년 10월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서 제안된 학생교류프로그램인 'Campus Asia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한 협력대학 구성 협의차 중국을 방문하였다. 이어서 양 교수는 9월 12일(일)~19일(일) 프랑스에서 개최된 전세계 국제교류 관계자들의 모임인 EAI(European Association for International Education) 행사에 참가하여 우리 대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해외 대학들과의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대학을 방문하여 국립인문대학 등과 교류협정을 타진하였다.

## 교수동정/신간소개

| **이용권** 교수(노어노문학과)는 2009년 8월 10일(월)~2010년 8월 9일(월)까지 미국 오레곤대학(유진 소재)에 파견되어 연구를 수행한 후 귀국하였다.

| **김동철** 교수(사학과)는 8월 25일(수)~30일(월) 캐나다 밴쿠버 UBC에서 '조선 속의 일본'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하계 워크숍에 참가하여 '왜관, 통제의 공간인가, 교류의 장소인가'라는 논문을 발표하고, UBC의 공동연구 프로젝트인 '전근대 동아시아에서의 국제관계'에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였다.

| **최덕경** 교수(사학과)는 9월 24일(금)~27일(월) 중국 광저우에서 개최된 제10차 동아시아 농업사 국제학술회에 참석하여 '동아시아 厠間과 人糞의 生態學(The Ecology of Excrement in East Asia)'이라는 주제로 논문 발표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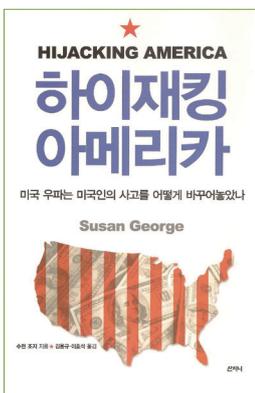
| **마조리 밀러** 교수(철학과)는 1년간(2009.9.1~2010.8.31)의 객원교수 임기를 마치고 미국으로 복귀하였다.

| **김두철** 교수(고고학과)는 2009년 9월 1일(화)~2010년 7월 31일(토)까지 일본 立明館大學에 파견되어 연구를 수행한 후 귀국하였다.

| **양은경** 교수(고고학과)는 8월 4일(수)~9일(월) 동북아역사재단으로부터 2010년도 동북공정대응 및 한중역사문제에 대한 지원을 받아 중국 현지에서 자료 조사를 벌였다.

## 신간소개

하이재킹 아메리카



김용규 교수(영어영문학과)는 제3세계의 빈곤, 개발, 부채 등에 관해 활발한 저술 활동과 실천 활동을 벌여온 수전 조지의 『하이재킹 아메리카』(산지니)를 공역한 역서를 출간했다. 미국을 하이재킹한 '힘'에 대해 심층 분석한 이 책은 미국 사회와 정치 문화가 겪어온 변화를 놀랍고도 신랄하게 탐색하면서 그 속에 숨겨진 신보수화 경향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종교적, 비종교적 신우파가 미디어, 사명감, 마케팅, 그리고 경영에 뿌리내려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더 나아가 미국인의 사고를 변화시킨 과정을 예리하게 짚어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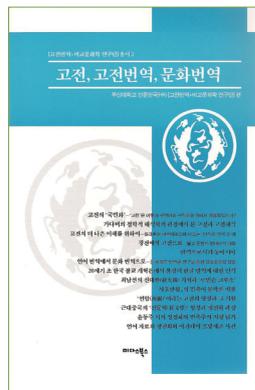
유럽중심주의 비판과 주변의 재인식

이 책은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점필재연구소 인문학(HK) 「고전번역+비교문화학 연구단」이 발행하는 총서의 제권(미다스북스)이다. 연구단은 2007년 '고전번역학과 비교문화학을 통한 소통인문학의 창출'이라는 아젠다를 설정하고 출발한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활동해왔다. 서양의 지배는 단순히 자본주의적 경제논리에 의해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



니다. 그 지배는 자신의 문화적 우월성을 과시하는 이데올로기적인 논리를 통해 보다 미시적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그 산물이 바로 유럽중심주의이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유럽중심주의의 학문적, 제도적 영향을 비롯하여 근대의 다양한 정치적 제도적 역학 관계를 집중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고전 연구의 정치학을 해명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유럽중심적 이분법에 근거하여 중심이 주변을 일방적으로 재현하는 논리를 비판하고 탈식민주의적인 대안 개발에 참조가 될 만한 문화이론들, 고전연구의 정치학과 주변의 잠재적 가능성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문화이론의 구성에도 힘을 쏟을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고전, 고전번역, 문화번역



이 책은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점필재연구소 인문학(HK) 「고전번역+비교문화학 연구단」이 발행하는 총서의 제2권(미다스북스)이다. 여기서는 구체적 삶에 근거한 인문정신의 보편적 원리를 되짚어보고, 길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현실 앞에서 길을 더듬어가게 해줄 고전연구 및 고전번역에 주목한다. 비교문화학을 고전번역학을 통해

구체화하고, 고전번역학을 비교문화학의 시각을 통해 보편화하는 작업을 통해 급변하는 시대에 인문학적 대안을 제안하고 있다. 고전 연구의 영역은 문화간 역학관계와 헤게모니 투쟁과 분리될 수 없다. 이 책에서는 기존 고전번역학의 형성과 그것이 근거하는 문화간 역학관계를 비판적으로 살펴보는 가운데, 특히 주변/중심의 관계 형성과 고전이 주로 중심의 논리로 작용해 온 기제를 해명하고 있다.

한국문학의 세계화



김천혜 명예교수(독어독문학과)는 세 번째 평론집 『한국문학의 세계화』(세종출판사)를 출간했다. 총5부로 구성된 본서는 아름다운 시 세계, 흥미로운 소설 세계, 문학일반, 문학과 외국, 문학 속의 바다와 항구도시 부산에 대해 명징한 언어로 서술하고 있다. 오랫동안 문학평론가로 활발하게 활동해온 저자는 문학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을 바탕으로 독자를 올바른 독서 예로 인도함과 동시에 문인들이 올바른 문학의 길을 가도록 격려와 질책을 하고 있다.